



조선인민권 대장 장철 선생.

장철선생은 1914년 9월 20일에 원풍(원강) 연해주 안포시예촌 주역 노포 기업부근 시에서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신도 시에서 초학교와 초중을 마갑하시고 다음사범 전문학교까지 마갑하시었다. 1932년에 사권을 마갑하신 장철선생은 처음 2년간 초중학교

고원길 소년단 지도원으로 일하시던 1933년부터
 1937년까지는 준공청단체 지도원을 겸하여
 공청회 책임서기로 1937년, 즉 강제어구당시까지
 일하시었다. 강제 어구에 의하여 무크뱅크 공화
 국에 도착한 강선행은 1938년부터 1940년까지
 하위계급의 상설직구역에서, 다음 1941년부터
 1943년까지 하설직구역 당지르원으로 일하시
 었으며, 1943년부터 1945년 말까지 하설직구
 구역 국영농장 당조직원으로 일하시다가 1946년초
 에 준군사동원부의 명령에 의하여 북한에 도착하
 시어 북한에 귀순한 소년군 제 25군단 민전사령부
 산업부 계통에서 농역관으로 일하시었다. 1946년
 말에 조종되어 북한 정부 계통 정치안전부 복직업자
 로 1947년까지 일하시었다. 1948년부터 1950년
 동쪽 상관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북 모노사이드
 유관 광석 채광에서 담중앙 대표자로 일하시다가
 1950년 8월 25일에 전쟁이 개시되자 전선후방
 복사령관으로 임명 되어 전쟁 3년간 일하시었다.
 전쟁이 끝났자 강선행은 하나 함남비료공장
 지배인으로 임명 되어 비료 공장을 복구하고 그를
 다시 돌게 하였다. 1955년에 비료공장이 완전히

복구되어 비록나 생산되기 시작하자 장선생은
 곧 다시 동원되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후방
 부사령관에 임명되어 1959년 소련에 귀환
 할 당시까지 일하시었다 당시 군사청장은 중
 장이었다 1959년 말에 소련에 귀환한 장선생은 소련
 공산당의 파견에 의하여 하우켄스에 도착하여 고령당
 학교에서 공부하시어 그를 졸업하신 다음 1963년에 공화
 국 건설성 당조직원으로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일하시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는 한인들이 몰려서 경영
 하는 일련 배재모범 국영농장 당조직자로 일하시어
 1974년에 권급생활에 들어가 복원 김혜옥, 아들 장
 와실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두 손녀를 데리고 하우켄스
 시에서 아구뎡북까지 거주하다가 1995년 4월 28일
 에 서거하시었다. 장선생은 국가훈장들로 수여받았다.



사진은 장선생이 흥남비료공장 지배인으로
 계실시 당 열성자 회의에서 보고하는 장면.

Qayerdan

Par avion

Otkuda

Ўзбекистан

г. Ташкент 700115.

Тел. 1-29-34.

М.С.Н. 7.



Qayerga

Куда Сеге. Южної Кореи.

서울 대한민국, 리먼길전

Recomm

R | Tashkent 145
 No 185

185

중구, 치무로 5가, 20-5 12220
 4층

4